

설 명절 나주배로 풍성하게... 배 선과장서 공급 상황 점검

설 대목 대비 출하 물량 안정 공급 체계 확인

'천년이음 나주배' 명절 대표 과일 위상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명절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한 나주배의 안정적인 출하와 품질 관리를 위해 선과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3일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설 명절 성수기 나주배 출하 물량의 준비 상황과 선과 작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대목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나주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선과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나주시지부장, 세지농협조합장,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대표를 비롯해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윤병태 시장은 관계자들과의 환담 후 선과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출하 물량 규모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근로자 안전과 효율적인 선과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올해 설 명절 나주배 선과 작업량은 지난해 1천541톤 대비 31% 증가한 물량으로 명절 소비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출하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나주시는 선과, 포장, 물류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명절 대표 과일로서 나주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천년이음 나주배'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접목한 명품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선물용 과일로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배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땀과 정성이 더해진 전국적인 명절 대표 과일"이라며 "설 명절 기간에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나주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사육 환경부터 품질까지, 한우 키우기 최적지 강진군 올 한우산업 정책사업 51종 추진, 보조 65억 원 투입

강진군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조사료, 안정적인 사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우 사육이 활발한 지역이다.

2026년 2월 현재 990농가가 3만 7천두를 사육중이며, 다른 시군에 비해 거세우 비율이 낮고 암소 비율이 72%로 번식우 사육 기반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육형태를 갖추고 있다.

강진군은 2026년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65억원을 투자해 한우개량, 사양 관리, 품질향상, 마케팅, 조사료, 경영 안정 및 기타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51종의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강진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한우의 평균 경매가격을 살펴보면 암송아지(300~350만원), 수송아지(430~470만원), 임신우는 600~65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20~30%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는 송아지 총 4,450두가 거래됐다.

강진에서 키우는 송아지는 면역력이 약한 시기부터 고단백 조사료인 알팔파를 펠렛 형태로 압축시켜 만든 보조사료를 급여해 성장기 송아지의 근육 발달 및 골격 형성이 우수, 가축시장을

방문한 농가 및 상인들에게 우량 송아지로 인식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알팔파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이 우수해 성장속도와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조사료이지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입 하기에는 경영비 부담이 큰 고급 조사료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8,000만원(보조 40, 자담 40)을 투자해 관내 전체 2~9개월 송아지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시책으로 우량송아지 유전자원 보존을 통한 농가 소득화를 위해 매월 1~3째주 월동우·옴퉁한우 경매장에서 최고가를 받은 암·수송아지를 구매할 관내 한우농가에 두당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올해 9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고능력 우량 번식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외모, 선행심사 등을 통해 선발한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 대비 사업비 3,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는 사업비 2억 7,000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발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진도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정기부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8일까지 '설맞이 세배 드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산물 2종(진도 홍주, 진도 곱창김)을 추가 제공해, 총 3종 이상의 진도 특산품을 제공하는 '세배 드림' 행사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사업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물론, 기부금 30% 상당의 담

진도군,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세배 드림 이벤트' 진행 지정 기부 참여하면 특산물 2종 추가 제공

레품을 포함해 총 3종 이상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의 지정기부사업은 '보배설 진도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사업으로, 진도군 지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의료 기반(인프라)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도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정기부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금이 지역의 시급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기부자의 의미를 느끼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생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며, "기부자에게는 풍성한 진도의 특산품으로 만족



을 드리고, 진도군은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 정월대보름에 고흥우추천문과과학관을 정상 운영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흥우추천문과과학관에 따르면, 설 연휴는 달을 보기는 어렵지만 목성과 사계절 중 밝은 별이 가장 많은 겨울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설 연휴(2.14~2.18), 특별 운영을 마친 뒤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체 휴관한다.

이어지는 삼일절 연휴(2.28~3.2.)에도

고흥우추천문과과학관, 다채로운 천체 관측 프로그램 운영

설날·삼일절 연휴 특별운영 및 개기월식 관측회 개최

정상 운영하며, 정월대보름인 3월 3일에는 개기월식 관측회가 이뤄진다. 이번 개기월식은 저녁 6시 50분경부터 밤 10시경까지 진행되며, 관측실을 상시 개방하고 다양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기월식 행사 다음 날인 3월 4일은 대체 휴관한다. 다만 천체 관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기월식 관측회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흥우추천문과과학관은 국내 최대 규모인 800mm 반사 망원경과 돔 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양부일구 등 고전문 기기와 태양계 체계, 용오름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면에 낙하한 운석 모형도 전시돼 있다. 또한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전문과학관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는 방문객이 집중돼 혼잡하거나 관측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겨울철 야의 관측인 만큼 방한용품은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암군이 이달 20일까지 '2026년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지역 청년의 교류 확대,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취·창업 ▲문화 ▲자기계발 ▲봉사 ▲지역발전 연구 ▲기타 활동 6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동아리를 돕는 내용. 19~49세의 생활 기반이 영암인 청년

영암군,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취·창업, 문화 등 6개 활동 분야 10개 동아리에 70만원씩 지원

5인 이상이 동아리를 만들고, 그 구성원 40% 이상이 영암군민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영암군은 총 10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1개 동아리당 지원금 70만원과 자부담

30만원으로 활동하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비, 강사비, 재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동아리 신청은 영암군 청년지원팀에 방문·등기로 할 수 있고, 영암군은 3월

중 심사·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3~11월 활동을 진행하고, 연말 활동 성과 공유회에 참여하게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이 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번 동아리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을 운영하고,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귀농·귀촌 준비 단계부터 초기 정착까지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형 과정으로 농업 기초이론, 농지 및 주택 마련 절차, 지원정책 안내, 선도 농가 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4시간씩 총 9회,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은 교육과 함께 현장 중

심 교육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신청은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욱)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고시/공고) 혹은 공식사향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350-557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